

프랑스 대통령 “파리 신기후협정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반드시 포함”

5 월 19 일 프랑스 및 독일 대통령은 2020 년까지 개도국에 연 1,000 억 달러의 기후재정을 지원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이 올해 말 파리에서 타결될 신기후협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열린 피터스버그 기후대화에서 “재정 공약 없이는 파리 협정도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개도국은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 어떤 협정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러리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파 오우스만 잘주(Pa Ousman Jarju) 잠비아 기후변화 장관은 재정이 “핵심”이며, 개도국이 저탄소 성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지원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9 년 코펜하겐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들은 2020 년까지 기후재정으로 공공 민간 재원으로부터 연 1,000 억 달러를 마련해, 개도국이 심각해지는 극한 기상현상과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청정한 경제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기로 약속한바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000 억 달러 기후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가 어떻게 현재 300 억 달러의 기후재원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700 억 달러를 마련할지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리는 또한 6 월에 독일에서 있을 G7 정상회의가 그러한 경로에 “중요한 신호”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2009 년 1,000 억 달러 목표를 지지한 바 있으며, 현재 독일이 해야 하는 몫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독일은 기후대응에 대한 지원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인데, 2019 년까지 2014 년 수준에서 83 억 유로(92 억 8 천만 달러) 개발원조 증액부분의 일환으로 기후 원조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독일 연방 환경부 장관 조헨 플라스바스(Jochen Flasbarth)는 트위터를 통해 2014 년 독일 공적 지출 예산에서 기후 재정은 약 20 억 달러였으며, 이는 2020 년까지는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자금과 혁신 재원 역시 공적 자금에 더하여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양 국 정상들은 입을 모았다.

양 국은 탄소 배출을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을 통해 국제적인 탄소가격이 설정될 필요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 했다.

잠비아, 적응 목표 촉구

메르켈 총리는 이제까지 102 억 달러 공약을 받은 GCF 가 파리 COP21 이전에 지원을 개시할 첫 프로젝트들을 선택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금이 필요한 국가들이 알고 있는 공약된 금액과 실제 받은 액수 사이에는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것[GCF 의 프로젝트 승인 및 자금 분배 개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옥스팜(Oxfam)은 다른 선진국들도 개도국을 위한 기후 지원을 늘릴 신뢰할만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리 협정은 2020 년 신기후협정이 발효 이후 기간별 목표를 어떻게 정할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한다고 옥스팜 기후변화 정책 자문이 전했다.

“지금까지 독일과 선진국은 2020 년 이후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속도 수용하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파리 강력한 신기후협정도 탄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들은 산업화 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2 도씨 제한이라는 국제적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를 더욱 키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파리 신기후협정을 위해 국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2050 년까지 2010 년 대비 최소 60%는 일어나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는 “대단히 야심찬” 장기 글로벌 목표라고 말했다.

잠비아 기후변화 장관은 취약국들은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해야 하는 “근본적인” 필요성이 있으며, 파리 신기후협정이 “회복력 있는 세계 구축”을 위한 적응 목표를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란드 대통령은 “신기후협정 타결을 위해서는, 선진국이 개도국과 함께하겠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쓴이: Megan Rowling / 출처: Thomson Reuters Foundation,
원문 <http://www.trust.org/item/20150519121233-ymq2z/?source=gep>